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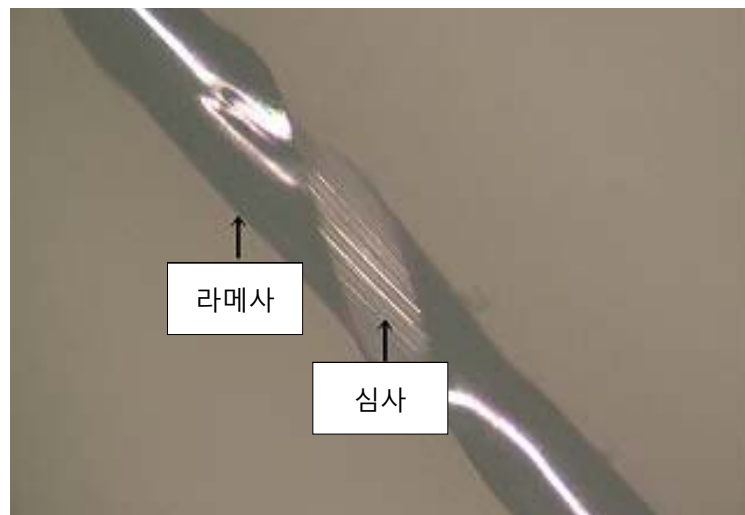
## 42. 섬유제품 소비과정에서의 클레임 사례와 시험방법(8)

### - 라메의 소실 -

#### □ 라메의 소실

##### ○ 소재

- 라메사는 플라스틱 필름(폴리에스터가 많다)에 금속을 증착하고, 플라스틱 필름에 끼워서 적당한 폭으로 잘라 섬유 상태로 한 것임.
- 플라스틱, 금속, 코팅 층, 플라스틱의 순으로 적층한 것도 있음. 이들은 사고가 적음.
- 라메사에 사용되는 금속으로는 알루미늄, 금, 은 등이 있고, 이 중 사고가 되는 것은 대부분 알루미늄인 경우가 많음.
- 이것은 알루미늄이 다른 금속과 달리 무기산이나 알칼리에 용이하게 용해하기 때문임.
- 은을 사용한 라메사는 소실보다도 유향과 반응하여 황화물이 되어 흑변하는 사례로 클레임이 되는 경우가 많음.



<플라스틱 필름에 금속을 증착하여 만든 라메사로 심사를 감은 상태>

##### ○ 외관

- 외관은 금속광택이 소실되어 있음.

- 부위는 특히 정해져 있지 않으나, 세탁 등의 경우에는 전체에 걸쳐서 발생하고 산, 알칼리가 비산 등에 의하여 부착된 경우에는 액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변색은 원형으로 번지듯이 넓어지기도 하고, 실에 따라서 퍼지기도 함.
- 보관 중, 공기 중의 산성 가스에 의하여 라메가 소실되는 사례가 있으며, 이러한 경우에는 공기와 접촉하는 부분에만 생기는 특성이 있음.



#### ◦ 시험

- 라메사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금속광택이 소실되어 있는 것을 확인함.
- 라메사에 사용되고 있는 금속을 확인함. 역시 금속이 알루미늄인지 기타의 것 인지는 묶은 염산에 용해하는지 어떤지로 확인할 수 있음.
- pH 시험지에 의한 pH의 측정을 하여 산성인 경우에는 황산이온의 검출이라든가 염소이온의 검출을 함.